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1. 2. 16.(화), 14:00~16: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 의 사 항】

1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3
---	--------------------------------	---

심 의 사 항

1.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가. 제안사항

「대곡천 암각화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광역시에서 <대곡천 암각화군(신청 유산명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신청하였음
- 본 위원회 2020년 제2차 회의(2020.2.18.)에서 “보류”의결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9조

-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산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4. 보존 관리 계획

다. 유산 심의 경과

- 대곡천 암각화군(신청명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 등재추진 경과
 - 2010.1월 : 잠정목록 등재
 - 2015.3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부결”
 - 2020.2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보류”
 - 2021.1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재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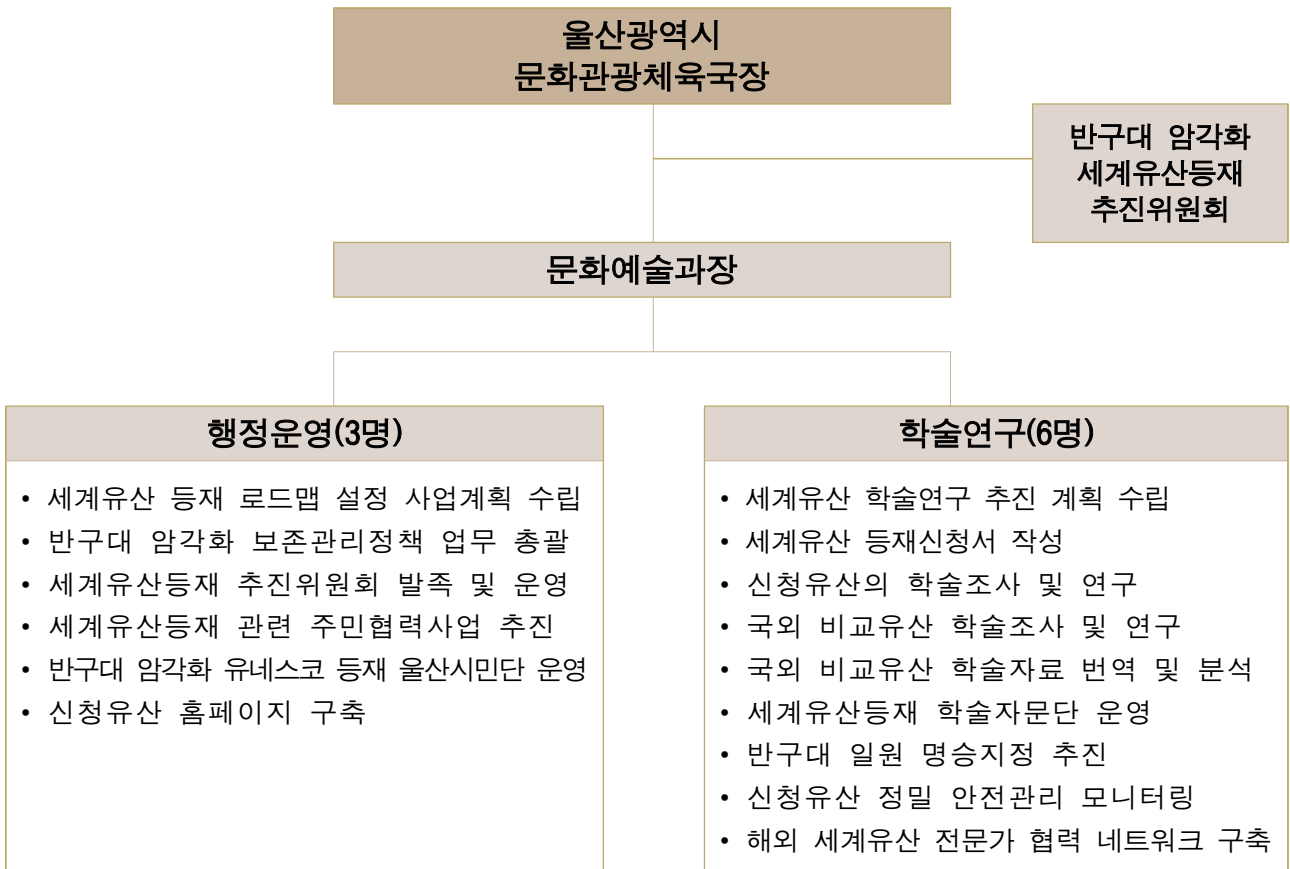
라. 우선등재목록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우선등재목록 선정 여부 결정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대곡천 암각화군(신청명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 신청내용(요약)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 학술자문위원회

-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체결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약서>에 따라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2020년 10월 발족). 위원회는 행정, 학술연구, 보존관리,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

구분	인원	주요 역할
위원장	1	· 울산광역시장
행정분과	7	· 각 협약기관 총괄 운영(문화재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술연구분과	9	· 반구대 암각화 관련 학술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보존관리분과	10	· 반구대 암각화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분과	11	·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및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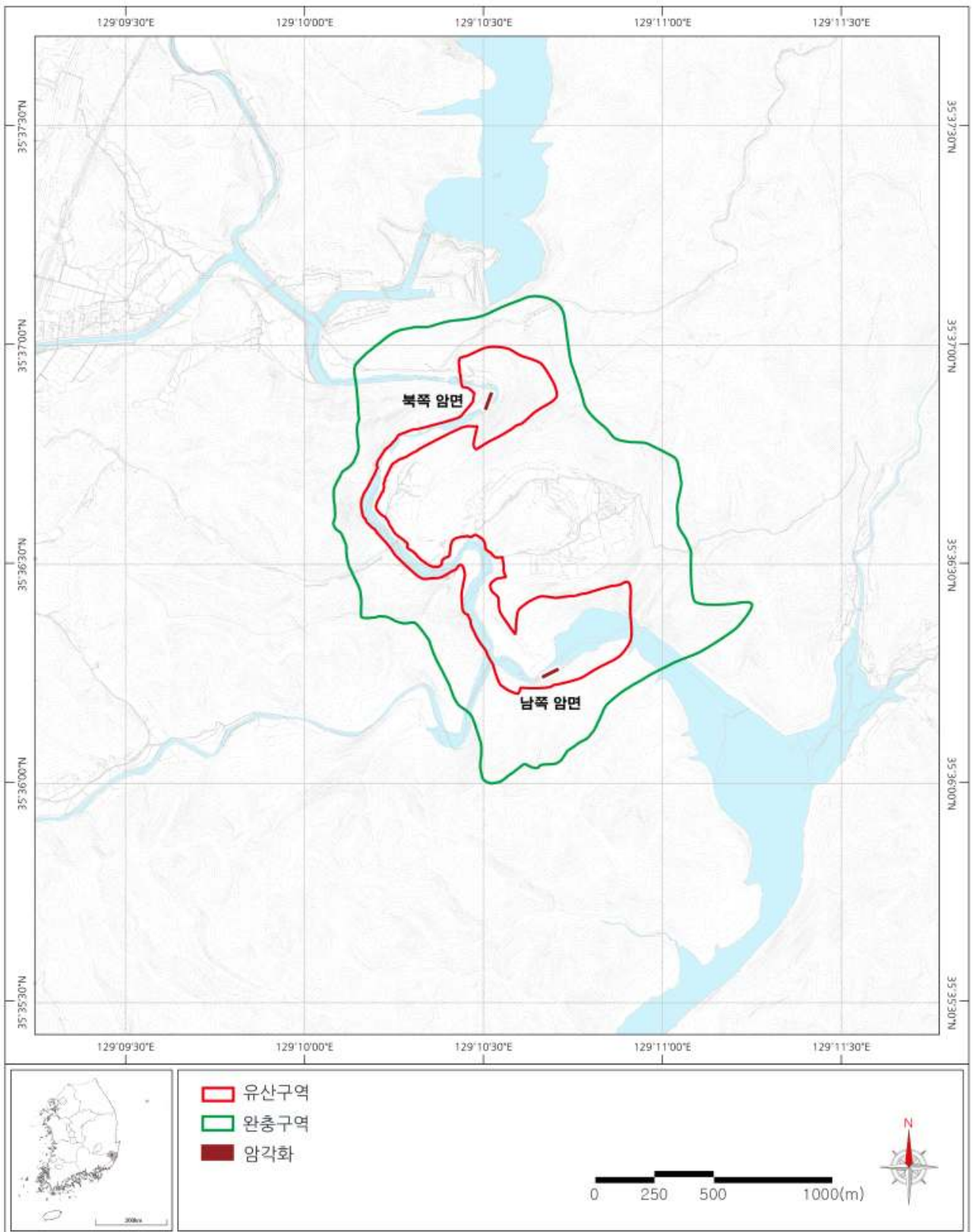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경계 설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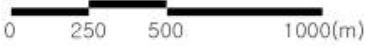

- 등재구역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함
- 반구대 계곡 일대는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하나의 연속된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었기에 산, 하천 등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유산구역의 경계를 설정함
- 유산구역의 남쪽과 북쪽은 암각화가 위치한 공간의 신성함을 보여줄 수 있는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첫 번째 능선까지 설정하였고, 완충구역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의 다음 첫 번째 능선을 포함하여 적절한 범위를 설정함
- 신청유산은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각종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음

[유산구역 현황]

일련 번호	유산명	중앙점좌표	신청구성요소 유산구역면적 (ha)	완충구역면적 (ha)
1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	N35°36'30.42", E129°10'26.39"	42.30(ha)	205.63(ha)
	247.93(ha)		42.30(ha)	205.63(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산구역 완충구역 암각화 	 
---	--

3)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 및 계획

가) 등재기준

○ 등재신청기준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는 수천 년 동안 신성한 공간에 새겨진 바위그림으로, 신석기 시대 해양어로문화의 정점인 포경활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독보적 증거이자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산이다.

나) 유산에 대한 설명

○ 제시한 유산명칭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

○ 구성유산 : 1건

○ 유산구역 : 유산구역(42.30ha), 완충구역(205.63ha)

○ 유산개요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의 포경 활동이 묘사된 바위그림으로 신청유산은 한반도 동남부 연안지역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유산구역 중심부에 거북 모양의 절벽이 있어 예로부터 반구대(盤龜臺)라 불렸다.
- 유산구역 남쪽과 북쪽의 암면 두 곳에는 다양한 동물그림과 기하학적 그림, 문자 등이 남아 있는데, 이 중 고래와 관련된 그림들은 동아시아에서 포경 활동의 가장 이른 시기 모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 유산구역 남쪽의 수직암면에는 신석기 시대에 단단한 돌을 이용해 새긴 그림들이 남아 있는데, 다양한 동물그림과 이를 사냥하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그림과 고래사냥 과정이 구체적으로 새겨져 있다. 이러한 그림은 당시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바다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업활동과 관념 등을 보여준다.
- 유산구역 북쪽의 수직암면 좌측에 새겨진 고래를 포함한 신석기 시대의 다양한 동물그림과 이를 사냥하는 모습은 남쪽 암면에 묘사된 그림들보다 간략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북쪽 암면에 새겨진 그림의 주제와 표현이 남쪽 암면에 남아있는 암각화와 유사하여, 두 암각화의 연속성이 드러난다.

- 이와 함께 청동기 시대와 신라 시대에 새겨진 그림과 문자도 같은 암면에 남아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제작되는 동안 대부분 중첩되지 않고 기존의 그림을 피해 새겨졌다. 반구대 계곡 일대를 ‘오래된 계곡(古谷)’, ‘글을 새긴 계곡(書石谷)’ 이라 칭한 북쪽 암면의 신라 시대 문자를 통해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는 예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암면들에 남아 있던 그림과 문자들이 긴 시간동안 존중되었으며, 이 지역이 하나의 연속된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포경활동은 신석기 시대의 해양어로 기술과 공동체의 협업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해양어로문화의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발달하면서 인류 해양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포경활동의 증거는 고래의 회유경로를 따라 전 세계에 바위그림으로 남아있으나, 신청유산은 포경활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독보적 증거이자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산이다.

다) 보존 관리 계획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는 「문화재보호법」 및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보호되고 있다. 유산구역 전체는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추가적인 개발 우려는 없다. 특히 유산구역에 있는 두 암각화는 각각 국보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다. 유산구역의 대부분은 국공유지이며 일부는 사유지이다.
- 보존과 정비는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현상변경 및 보존정비계획은 문화재청에서 허가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행한다. 유산 내의 주요 속성인 암각화에 대한 자연환경 압력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 신청유산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울산광역시는 공인된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며 이중 국보로 지정된 두 암각화는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에서 분담하여 지원한다. 울산광역시는 집중호우, 지진, 화재 등의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 신청유산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치한 자동계측기를 통한 사진촬영과 암면 구조변화 계측, 3D 스캔을 통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유적 관리인과 모니터링 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일상적인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 모니터링 요원은 매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암각화가 위치하는 지점의 온도와 습도, 풍량, 이끼와 수목 등 생물학적 유해요소, 인위적인 훼손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유산구역 일부에 상시적으로 가해졌던 자연 환경적 압력은 완충구역 밖에 있는 사연댐의 수위조절을 통해 2014년부터 점차 개선되어,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일시적 압력으로 저감되었다.

- 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지역민의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중앙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자연 환경적 압력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고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구대 계곡 일대가 가진 공간의 신성함과 유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바. 전문가 검토 의견

- 회의일시 : 2021.2.5.(금) 15:00 / ○○○회의실
- 검토자 : ○○○(○○대학교 교수), ○○○(○○○원장),
○○○(전 ○○대학교 교수)

[검토의견]

- 우선등재목록 단계임을 감안한다면, 등재신청서의 진행상황은 양호한 편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요소의 구현에 있어서 포경활동을 중심으로 인류사적 가치를 서술하였음.
- 전반적으로 등재신청서 요건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포경활동이 가진 중요성, 유사유산과의 비교연구 등에 있어 집필진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 검토를 통한 신청서 보완작업이 필요함.
- 보존관리 계획에 있어 제시된 MOU 외에 구체적인 보존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계획 마련이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등재기준 서술 및 종합 요약)** 고래의 생태 습성, 사냥, 해체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주변의 상징적 경관 속에서 이루어진 포경 활동의 인류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음. 제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신청유산의 특징을 고려해 본다면 ① 포경활동의 이른 시기라는 접근보다는 포경활동의 구체적 실제라는 측면, ② 동아시아에서는 암각화로 등재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측면, ③ 선사 시대의 포경활동이 가진 위상과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측면을 등재기준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청유산의 설명)** 요소의 구현에 있어서 포경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은 목적성 면에서 타당함. 다만, 포경활동이 가지는 시대적 혹은 인류사적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논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반구대 계곡 일대를 등재 신청 유산으로 설정하여 이 공간에 함축되어 있는 문화적, 역사적, 상징적 가치와 특성이 비교적 적절하게 서술되어 있으나,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시대 까지를 아우르는 긴 시기는 신청유산의 완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시기적

연계를 높일 수 있는 서술이 필요함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설정)** 유산구역이 천전리 암각화와 대곡리 암각화 부분 이외에도 두 암각화를 이은 S자 계곡 전체로 구성되어 있음. 암각화가 발견되지 않은 구역을 유산구역에 포함한 이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비교연구)** 전반적으로 등재신청서 요건에 맞게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신청 유산에 내재되어 있는 인류사적 가치의 보편성과 고유한 특수성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신청유산이 어떤 시기의 역사적 증거를 대표하는지, 또는 유산이 다양한 유사유산 중 어떤 독보적이고 특출한 사실을 예증하는지를 보다 정치하게 비교분석하여야 함.
- **(보호관리계획 등)** 보호관리 관련하여 보존관리에 대한 예정 사항이 대부분이며, 현 단계에서는 MOU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보존관리 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특히 침수, 지진, 화재, 집중호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신청서에 서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등재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획 및 선결 조치가 더 구체적으로 명기될 필요가 있음.

사. 검토 의견

- 금번 제시된 신청서의 집필 수준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설득력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학술팀이 보장되어 전문성이 제고되었음. 유산의 명칭을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로 제안함으로써 단일 암면 단위가 아닌 공간에 대한 제시 임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유산의 가치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서술된 편이며 각 유산의 현황 및 개별적 가치를 전반적으로는 잘 정리하였음.
- 등재신청서 각 부분별 기술 항목이 비교적 적정하며, 제시한 등재기준에 따라 집중도 있는 서술을 시도하였음. 해당 암각화가 포경문화의 가장 이른 시기의 구체적 증거라는 측면과 함께, 특정한 암면을 선정하여 밀도 있게 암각화를 그린 점, 신석기~신라시대라는 긴 시기동안 암각화가 지속적으로 그려진 점 등 유산이 지니는 다양한 가치들이 면밀히 비교되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움
- 이와 함께, 등재기준의 '독보적 증거'로서 신석기시대 포경활동이 가지는 인류사적 가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서술 보강과 비교연구 등이 필요하며, 유산이 드러내는 시기와 OUV의 연계 및 암각화가 존재하는 계곡의 공간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함

- 보호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회의('20.2월)시 지적된 국가명승지정의 심의 절차가 가시적으로 진전되는 등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존 의지는 예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행이 담보된 실행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본 등재 추진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개정된 문화재청 예규(문화재청 예규 제228호,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선등재목록 - 등재신청후보 - 등재신청대상>의 각 심의 단계별로 집필진, 전문가, 문화재청의 검토를 통해 신청서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려하면서, '우선등재목록'의 단계에 적합한 검토가 필요함
 -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유산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등재신청후보' 선정을 문화재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재신청후보'로 선정된 유산에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소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포함하는 2차례 보완을 실시하고 △이후, '등재신청대상' 선정을 심의하며 △이 때, 선정되지 않은 유산의 '등재신청후보' 지위 유지 여부 또한 심의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내 절차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함
 - 단,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대책을 조속히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별도붙임. 「대곡천 암각화군(신청명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 등재신청서(안) 설명자료(울산광역시)